

[한국 부흥집회 보고(1952년 이전 작성으로 추정)]

한국 대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도집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은혜로우셨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에도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짧은 알래스카 방문이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많은 이들이 모든 교회의 예배와²십대선교회(YFC)를 통하여 회심했습니다.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한국의 서울로 가는 연결편을 놓쳐서 일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이 하루의 지연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 친구인 데일 비요크스(Dale Bjorks)와 일레인 노드스트롬(Elaine Nordstrom)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 옛 친구와 새 친구들로부터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 사역 준비의 대부분을 맡아 주신³기독교부흥협회(CRF)의 회장인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와⁴팀(Team) 선교회의 윌리엄 가필드(William Garfield) 목사, 후속 작업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네비게이터(Navigators) 선교회의 더글러스 코자트(Douglas Cozart) 군목, 한국

¹역주: 원문에 작성일 관련 정보가 없으나, 한국에서의 집회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반대로 어린이 후원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컴패션 전신) 시작 전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²십대선교회(YFC, Youth for Christ):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으로 194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십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및 월드비전(World Vision)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관련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Youth_for_Christ).

³기독교부흥협회(CRF, Christian Revival Fellowship): 1950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입국한 로버트 라이스(Robert F. Rice(1921~)), 한국명: 나의수) 목사가 대구시 남일동 33번지에 설립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래의 구전적 전도 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 실천하기 위하여 문서 선교를 주요 사업으로 한 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초기에는 '대한 부흥관'이라고 불렀다(https://www.kich.org/bbs/view.html?idxno=3375&sc_category=).

⁴팀 선교회(Tea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1890년 미국의 프레드릭 프랜슨(Fredrik Franson)이 설립한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단체(https://en.wikipedia.org/wiki/Evangelical_Alliance_Mission).

육군 군종감 김형도(Kim Hyung Do) 목사, 주한미군 군종실장 와이든(Wieden) 목사, 그리고 주한군사교문단(KMAG)의 감사관인 세실 힐(Cecil Hill) 대령 등으로 모두 훌륭한 크리스천 형제들입니다.

향후 일정과 계획을 빠르게 공유받고,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사역의 거점인 대구로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필요한 장비와 옷, 전도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저의 통역사인 육군 군목실 소속 정(Chung) 대위와 함께 기독교 서적을 많이 가지고 한반도 남서쪽 해안의 바람 많고 돌 많은 제주도를 향해 육군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섬에는 한국의 제1 신병훈련소가 있어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추운 육군 예배당에서 새벽 5시부터 하루 3~5회 드려졌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병사와 민간인이 이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일부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부대 밖 연대와 민간 교회에서도 야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집회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교단에서 수십 명의 목사와 교회가 협력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의 학장인 김 씨에스 박사(Dr. C.S. Kim)가 총회장을 맡았습니다. 뛰어난 기독교 평신도이자 한국 최고의 통역관인 황성수(Whang Sung Su) 국회의원이 제 통역사 역할을 잘해 주셨습니다. 집회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옛 일본 신사의 중심지였던 남산에서 큰 천막 1개와 보통 크기의 군용 텐트 6~8개를 세워서 진행했는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낮에는 태양 아래, 밤에는 별빛 아래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기독교신문(The Korea Christian News)>은 10일 동안 "64만 명이 모였고, 산은 인파로 뒤덮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64,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수를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첫날 새벽기도회(오전 5시)에 참석한 인원이 4,000명에서 마지막 날 새벽에는 15,0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10시 성경 공부에서 저는 죄의 고백, 기도, 부흥, 영혼 구원 등을 설교했는데, 참석 인원이 4,000명에서 20,0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2시 집회의 참석 인원이 5,000명에서 20,000명으로, 저녁 전도집회는 4,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었다는 경이로운 보고가 있습니다! 총 2,47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치들 중 일부는 다소 높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수를 세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매일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잡아도 최소 3,000명가량이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언론 보도로는 최대 10,000명이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들 중 수백 명이 거의 열흘 내내 금식했습니다. 이 모든

⁵황성수(Whang Sung Su): 한국의 제2,3,4대 국회의원 역임(<https://namu.wiki/w/%ED%99%A9%EC%84%B1%EC%88%98>).

일이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날씨,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날씨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울로 만든 두꺼운 속옷, 두꺼운 울 스웨터, 양복 재킷에 외투를 입었고, 설교를 시작할 때 외투를 벗었다가 끝날 즈음 다시 입었습니다. 매일 밤 설교할 때마다 제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강추위 속 집회였지만, 성령이 숨결이 저와 회중에게 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찬양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대해 듣고 한국의 가장 먼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로 교파의 박(Pak) 장로를 초빙하여 새벽기도회 인도를 맡겼습니다. 그는 죄의 고백, 기도 응답,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보고에 따르면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를 가진 17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그 증거를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김 박사 등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사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진실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대부분은 부끄러워집니다! 집회 중에 세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엄청난 군중은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로 나왔던 무리와 참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대한 강당을 짓기 위해 약 30,000,000환(공시 환율로 약 60,000달러)에 달하는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총비용은 2,000달러에 불과했지만, 이 헌금이 다 걷히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헌금 외에도 반지, 시계, 머리핀, 옷 등 많은 것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국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이 드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회심했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도전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생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집회에 참석한 세실 힐(Cecil Hill) 대령은 마지막 날 밤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 평생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폐회일에는 약 50명의 목회자가 폭격을 받은 교회 지하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저와 박 장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섬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새겨진 순금 반지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울의 부흥집회를 위해 다시 돌아와 달라는 초대의 표시로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곳에 올 수 있게 해 주셨고, 지금은 기도로 지지해 주시는 고국의 소중한 친구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저와 가족에게 외로운 시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또한 제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5)

복음에 매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에버렛 스완슨 올림